

# ‘무장애숲길’ 힐링 산행 마치고 ‘백순대’ 콜?

무장애숲길, 어른신도 문제없는 초보 코스  
남서울·서울대미술관 등 문화공간도 가득  
어린이들 물놀이 공간 ‘별빛내린천’도 인기



급리와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아예 안 쓰고 버티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한다. 휴가철 여름여행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휴가라면 이튿날 계절 휴양지나 풍광 좋은 계곡·바다로의 나들이, 아니면 각종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안락한 호텔에서의 ‘호캉스’를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만만치 않은 휴가비 지출이 아까운 사람들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지내는 ‘동네콕’이나 ‘집콕’을 선택한다.

이처럼 허리띠 졸라맨 ‘짠내 나는’ 여름휴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있다. 내가 사는 동네 주변을 돌아보면 뜻밖의 나들이 명소가 제법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관악구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김기연)이 관악문화재단과 함께 대중교통 지하철 신림선을 이용해 쉽게 갈 수 있는 여름 여행지를 추천했다.

## ●유모차도 갈 수 있는 편한 산행

관악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등산 명소다. 5월 개통한 신림선 관악산역이 생겨 지하철로도 갈 수 있다. 등산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고급자 코스 외에 아이, 어른 등 여행객자를 위한 무장애숲길도 갖추고 있다. 무장애숲길은 데크로 길을 놓아 만든 산책로이다. 경사도 8% 미만으로 설계해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이동할 수 있다.

숲길은 잣나무 숲터, 바위 숲터, 도토리 숲터로 연결되는 순환형 숲길과 지그재그 형태로 이어진 데크길을 걸어 올라가는 등반형 숲길 두 가지다. 등반형 숲길의 정상인 전망 습터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에 N서울타워가 있는 남산 일대가 선명하게 보인다. 두 종류의 숲길을 다 걸어도 3km 남짓이고 경사가 무난해 가벼운 산행에 좋다.(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 도보 3분 관악산역공원 진입)

## ●미술관 아트투어도 가능해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대한제국 시절 벨기에에 영사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붉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외관부터 이국적이고 고풍스럽다. 10월 3일까지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사전 프로그램-정거장’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사당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3분 거리다.



어린이나 어른신도 걸을 수 있는 낮은 경사도의 데크길로 조성한 관악산 무장애숲길의 순환형 숲길. 대한제국 시절 벨기에 영사관 건물을 개조한 남서울미술관 1층의 상설전시장. 햇빛을 막는 대형 차광막을 설치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별빛내린천의 어린이 물놀이장. 신림선대타운의 명물 백순대볶음. 다른 곳과 달리 고추장 양념을 넣지 않고 순대와 곱창, 채소를 들깨가루와 함께 볶는 것이 특징이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서울대 미술관 MOA는 네덜란드 건축가 렘 쿨하스가 설계해 2006년에 개관했다. 서울대 정문 바로 옆이라 서울대 버스정류장에서 걸만 건너면 미술관 뒷마당이다. 10월 9일까지 수목화가 정택영 작가 10주기 추모전이 열리고 있다.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S1472는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철 신림역 근처 봉림교 앞에 있다. 8월 한 달 동안 스트리트댄스를 주제로 관악구의 옛 풍경을 간직한 여러 장소에서 댄서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다.

## ●여름철 아이들 물놀이 천국

별빛내린천은 총 길이 6.7km로 관악산 호수공원부터 구로디지털단지지역까지 물길이 흐른다. 원래 이곳은 봉림교와 도림천수변무대 사이에 조성한 어린이 물놀이장이 유명하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각종 분수

대 시설과 햇빛 차광막을 설치한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다.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방문 전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여기가 백순대볶음 ‘성지’

신림선대타운의 백순대볶음은 순대와 곱창, 채소를 들깨가루와 함께 볶는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장을 중심으로 전문 음식점이 하나둘씩 생겨 순대골목을 형성했다. 1992년 지금의 순대타운 건물이 생겨 현재 30여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신림역 4번 출구에서 가깝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신림시장에도 제법 긴 역사의 로컬 맛집이 많다. 20년 역사의 시장탕수육, 육회비빔라면으로 유명한 고모네 정육식당 등이 대표적이다. 인근 흥부보쌈, 빵집 장불랑제리 등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내가게로 선정될 정도로 지역서 사랑받는 맛집들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하나투어, 중앙아시아 3개국 여행상품 선보



우즈베키스탄 칼란 미나레트

하나투어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중앙아시아는 아직 여행 목적지로 대중적인 곳은 아니지만 실�크로드의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현재 무비자,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고 비행시간이 7시간 내외로 비교적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하나투어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6일’, ‘중앙아시아 10일’ 등 중앙아시아 2~3개국 상품도 운영하며 상품에 따라 글램핑, 송어낚시 등 지역별 이색 체험 일정도 포함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 K2, 야외활동에 편한 ‘산타 백’ 시리즈 판매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여행지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산타(SANTA) 백’ 시리즈를 출시했다. 백팩, 슬링백(사진), 크로스백 등 여행과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됐다. 코듀라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며 GRS 인증을 받은 리사이클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의 가치를 담았다. ‘산타 백팩’은 캐주얼한 스타일의 백팩으로 하이킹과 여행은 물론 일상에서도 활용하기 좋다. 등판 부분에 메쉬 소재를 적용해 통기성이 뛰어나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산타 슬링백’은 수납력이 좋고 메쉬 지퍼 포켓, 하단 포켓 등 다양한 형태의 수납공간으로 소지품 휴대에 용이하다. ‘산타 크로스백’은 근교 여행이나 산행에서 간편하게 활용하기 좋은 캐주얼한 스타일의 미니 크로스백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나우, 친환경 스니커즈 ‘에이 조거’ 등 2종 출시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친환경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우가 코르크 인솔, 페트병 신발끈 등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스니커즈 2종을 출시했다. 청키한 매력에 돋보이는 ‘에이 조거(사진)’는 재생고무를 사용한 비브람사의 아웃솔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쿠셔닝과 접지력이 우수하다. 아웃솔 측면 디자인은 울퉁불퉁한 지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기본 스니커즈 ‘에이 그라운드’는 캔버스, 코듀로이 소재를 적용한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코듀로이는 재배 시 비료와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한 면 지속 가능한 면 소재 ‘오가니 코튼’을 사용해 친환경적이다. 두 버전 모두 뉴트럴 컬러를 사용해 다양한 코디에 잘 어울려 실용적이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코리아그랜드세일 31일까지 개최 외국인 대상으로 쇼핑·관광 할인 혜택 제공

한국방문위원회는 외국인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여름 행사’를 10일 개막했다.

31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그동안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

로나19로 침체된 관광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해 예년과 달리 ‘서울 페스타 2022’와 연계한 여름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여름 행사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과 쇼핑,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할인)을 마련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7개 항공사는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92% 할인하고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호텔롯데와 신라스테이는 장기 숙박시 숙박비를 최대 72% 할인하고 무료로 룸 업그레이드 등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숙박종합권을 준비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만의

쇼핑 혜택과 관광 편의도 강화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쇼핑 지원금과 즉시할인권을 지급한다.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여름 행사는 전 세계에 한국 여행의 본격적 시작과 안전함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본 행사까지 인바운드 관광 업계와 함께 방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12일(금) 음력: 7월 1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신중을 기하여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미가 있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마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는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잊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뱀뱀 만나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가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삼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고강한 행동을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어 내일은 보상받는 날이 되겠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관을 차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외견상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토끼띠가 귀인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성 관계를 조심하라. 중복되는 일로 피곤하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뿔을 달고 배가 물렁물렁하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오늘의 날씨			12일(금)		
서울 20/10	인천 20/10	춘천 20/0	23 31	23 28	22 31
강릉 20/0	대전 70/20	전주 90/20	25 32	24 31	25 32
광주 90/20	대구 70/20	부산 60/20	25 32	26 34	26 32
창원 60/20	제주 60/20	지역	26 33	28 33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8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